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89)	봉헌 (217)	성체 (152)	파견 (11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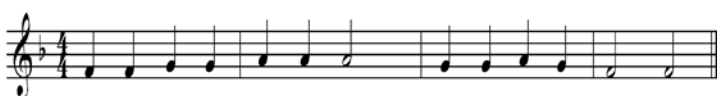
제1독서 | 이사 50,4-7

화 답 송 | 시편 22(21),8-9.17-18ㄱ.19-20.23-24(◎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수난복음 | 루카 22,14-23,56<또는 23,1-49>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4/21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28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17	\$100	\$1,4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23	유 요한/ 유 마리아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3/30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4/6	홍 마르코/ 홍 아네스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4/13	김 요아킴/ 고 안나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0	김유스티노/김유스티나	5/25	박 벨라델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5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30 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4 월 14 일(오늘)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모임시간변경: 기존 목요일을 수요일로 옮겨서 합니다.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주간 미사일정

4 월 18 일(목)오후 7 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4 월 19 일(금)오후 3 시- 십자가의길(영어, 스페인어)

오후 7 시- 주님 수난 예절

4 월 20 일(토)오후 8 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희생 예물 봉헌 안내

사순 기간동안 단식등 희생으로 마련된 정성을 준비된 사순 예물 봉투를 이용해 봉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구원을 향한 동행

-오수진 아가다 | KBS 기상 캐스터-

2년 전,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상캐스터 후배가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에 함께 나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아하는 후배의 제안이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울 것 같았고, 성서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 그간 다소 냉담했던 시간들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한 동기로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그 모임이 냉담을 풀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성서 모임은, '탈출기'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탈출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끄신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영화 '이집트 왕자'의 바탕이 된 이 기록은 이야기 자체로도 재미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난 자체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노예의 힘든 삶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말씀이며, 선택해야 하는 마땅한 제안이지만, 탈출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구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였지만,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긴 광야는 그들을 지치게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노예의 삶이 낫겠다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익숙해진 그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가 상황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패턴 또한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뜻을 향해 움직여야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익숙해진 냉담의 삶에 가까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탈출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신앙적 교훈들 속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점은, 그들의 힘든 시간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움직이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큰 구원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고군분투하는 우리 삶 속의 어려운 시간들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더 큰 사랑과 은총을 향한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시련 속에 지쳐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거나 그 뜻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각자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며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는 점을 믿고 그 굴곡들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묵상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